

# 敬의 現代的 意義

李 恒 寧 \*

## 目 次

- |                |               |
|----------------|---------------|
| I. 머리말         | 2. 海月の 三敬說    |
| II. 儒敎에서의 敬    | IV. 甌山과 敬     |
| 1. 不敬의 禍       | 1. 玄武經의 敬     |
| 2. 周易의 謙卦      | 2. 金一夫의 恭敬    |
| 3. 論語의 敬觀      | 3. 其他人の 恭敬    |
| 4. 孟子의 辭讓說     | V. 敬과 愛의 關係   |
| 5. 朱子의 居敬說     | VI. 敬의 現代的 意義 |
| 6. 退溪의 主敬說     | 1. 人間尊嚴性의 回復  |
| III. 天道敎에서의 敬觀 | 2. 宇宙神聖性의 確認  |
| 1. 水雲의 敬觀      |               |

## I. 머리말

대순진리회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을 증지로 하고 안심 안신 경천 수도의 4강령과 성경신의 3요체를 신조로 한다. 삼요체 중의 첫째인 성에 관해서 고찰하였으므로 이제 삼요체 중의 둘째인 경에 대하여 고찰할 차례가 되었다.

경은 한자로 敬이라고 적고 「공경할 경」이라고 읽는데 이것은 경의 내용을 공경(恭敬)하는데에 두는 것이다. 공경이라는 것은 남을 대할 때 삼가고 조심스러우며 겸손(謙遜)하여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존경(尊敬)의 자세다. 그 삼가고 조심스러움이 지극하면 상대방을 거의 신과 같이 섬

\* 홍익대 명예교수, 법학박사

기게 되는데 이럴 때는 경건(敬虔)스럽다고 한다. 종교적으로 신이나 부처를 모실 때의 삼가는 태도를 경건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공경에는 인간에 대한 존경과 절대자에 대한 경건이 다같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에 대한 존경심을 역설한 것은 유교이다. 유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존경하는 것이 인(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존경심은 단지 마음 속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존경심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의(禮儀)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공경스러운 움직임을 겉으로 나타내서 예의가 밝아야 그 공경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유교에서 경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예를 중요시하는 것은 이 까닭이다. 아무리 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겉으로 예를 지키지 않고 무례(無禮)하면 그 존경하는 마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오랫동안 유교적 전통에 익숙한 우리사회에서는 인간을 공경하고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대순진리회도 선조로서 3요체를 제시하면서 경을 중요시한 것은 우리의 전통윤리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경은 성경신의 삼요체의 하나로 들어있을 뿐 아니라 안심 안신 경천 수도의 사강령의 하나로 경천(敬天)이 들어있어 경은 사강령에도 있고 삼요체에도 있어 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조이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 대순진리회 요람(大巡眞理會 要覽)을 보면 경천(敬天)은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깨나 잊지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 속에 새겨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 하였고 경(敬)은 「심신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상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경이라 한다」 고 하였다.

정대진(鄭大珍) 대진대학교 이사장은 1996년 대순사상논총 제1집의 「대순사상연구를 위한 제언」에서 경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경은 공경(恭敬) 경건(敬虔) 삼감의 뜻을 지닌다. 경의 이러한 표면적인 뜻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그것이 지니는 가치의 측면이다. 즉 동양 고전인 주역(周易)에 보면 경(敬)으로 안을 바르게 하며 의(義)로써 바깥을 다스린다(敬以直內 義以方外)라고 하여 경은 안 다시 말해서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수행자의 자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성(誠)과 비교해 볼 때

성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지점이라면 경은 노력을 들여나가는 과정의 요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내면의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몸가짐을 삼가히하고 조심하여 엄숙한 장소에서 몸을 경건히 하는 일체의 자세가 다 경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이 몸가짐을 삼가는 자세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경은 또한 예(禮)와도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예라는 것은 일체의 언사 행동에 있어 절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므로 예를 행하는 근본된 자세는 다름아닌 경에 두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 갖추어 나가는 다양한 예의범절을 모두 경을 토대로 하여 표출되는 것이며 경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 예란 허례허식에 불과할 따름이다. 내면의 공경하는 마음이 겉으로 예로써 표출되어 나오는 한결같은 마음이 바로 경이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주자는 「경이란 몸과 마음이 숙연하고 표리가 한결같음」이라고 하여 내면의 마음과 외면의 몸이 모두 숙연함으로 일체가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경은 몸과 마음에 있어 표리가 일치하는 바른 예의자세를 가져다 주는 요체이다. 이렇게 정대진 이사장은 경을 풀이하었다.

## II. 유교에서의 경(敬)

유교에서 경(敬) 특히 경천(敬天)사상이 발달된 것은 농경생활에 있어서 자연의 혜택을 고마워하는데서 자연을 외경하는데에서 왔을 것이다. 경천은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의 주재자인 하느님(상제)를 존경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는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경은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겸손(謙遜)이 그 바탕이요 경의 반대는 교만인데 그것이 바로 불경(不敬)이다. 신에 대해서나 윗사람에 대해서 불경스러우면 화(禍)를 입거나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만큼 경이라는 것이 중요시 되었다.

## 1. 불경의 화


춘추(春秋) 좌전(左傳)의 성공(成公) 13조(條)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주(周)의 대부(大夫)인 유강공(劉康公)과 성숙공(成肅公)은 진후(晉侯)와 만나 상의한 결과 진(秦)을 치기로 하였다. 주(周)가 군대를 일으킬 때에 늘 하는 예(例)로 사(社 즉 토지의 귀신인데 군사를 일으킬 때에는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다)의 귀신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성숙공이 제육(祭肉)을 받는데 그 예(禮)가 불경(不敬)스러웠다. 그것을 보고 유강공이 평하여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는 사람은 천지의 중정(中正)의 기(氣)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중정의 기가 바로 이른바 명(命)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작(動作)에 예의(禮儀) 위의(威儀)의 규범이 있는데 이것은 천명(天命)을 정해서 잃지않게 하기 위함이다. 능한 사람(能者)은 의의를 길러 복(福)을 받고 능하지 못한 사람(不能者)은 이것을 부셔버리고 화(禍)를 취한다. 군자(君子)는 예의에 힘쓰고(勤禮) 소인(小人)은 힘을 다한다.(盡力) 예의에 힘쓰는 것은 경(敬)을 다하는 것이요(致敬) 힘을 다하는 것은 돈독(敦篤)함인데 경은 신(神)을 기르는 것(養神)이요 돈독은 영업을 지키는 것(守業)이다.



나라의 큰일은 용사(戎事 즉 적을 치는 것)와 사신(祀神 즉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인데 이는 모두 귀신을 섬기는 대절(大節)이다. 그런데 성숙공은 이 대절에 임하여 행작(行作)을 게을리하여 경을 잃었다.(失敬) 게을리서는 중정의 기를 잃음으로 스스로 천명을 버리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숙공은 이번의 전쟁에 살아돌아올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유강공은 성숙공의 불경(不敬)과 무례(無禮)로 그 운명을 예언하였는데 과연 그 예언대로 성숙공은 얼마 안가서 죽었다.

춘추좌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불경스러움은 천명을 거스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 2. 주역의 검과

주역계사(繫辭)에는 「경은 써 안을 곧게 하고 의는 써 밖을 고르게 한다」(敬以直內 義以方外)라는 말은 있으나 주역 64괘(卦)에는 경(敬)에 대한

괘는 없고 다만 경을 이루는데 필요한 겸(謙)괘가 있다. 겸괘는 (  ) 지산겸(地山謙)으로 아래는 산(山)이요 위는 땅(地)으로 낮은 가운데에 높은 산이 있는 모양이다.(地中有山)

산을 대단히 커다란 존재로 땅위에 우뚝 솟아 움직이지 않는 그 위용을 자랑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주역의 (  ) 간위산(艮爲山)괘의 뜻은 움직이지 말고 멈춘다(止)는 뜻이다. 그런데 그 크고 높은 산이 낮은 땅 속에 묻혀있으니 남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뜻이다. 이 괘를 얻으면 매사가亨通(亨通)하여 잘 되고 번영하며 군자는 끝냄이 있을 것(君子有終)이라고 하였다. 높은 곳에 있는 하늘도 그 기(氣)가 내려와 만물을 낳아 비로소 참빛을 발휘하는 것이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많은 것을 줄게 하고 적은 것을 늘게 하며 물건을 평가하고 베풀음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6효(  )의 맨 아래가 초음, 둘째가 2음, 셋째가 3양, 넷째가 4음, 다섯째가 5음, 여섯째의 맨위가 상음이다)의 뜻을 보더라도 초음(初陰-)은 겸손하고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어 덕을 쌓는 이가 군자다. 큰강을 건너는 것 같은 위험에 부딪쳐도 길하다. 이음(二陰-)은 겸허한 마음은 자연히 말과 행실에 나타난다. 이 마음을 잃지 않으면 길하다. 삼양(三陽-)은 천하를 위해 헌신하고 거기다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이가 군자다. 만민이 진심으로 따른다. 끝을 완전히 하기 때문에 길하다. 사음(四陰-)은 모든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한다면 법도에 거스르는 일없이 만사가 순조롭다. 오음(五陰-)은 부저의 몸이면서도 자기만족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진이의 가르침을 청한다. 그 래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를 당당하게 정복해버리는 것이 좋다. 만사가 순조롭게 될 것이다. 상음(上陰-)은 겸손한 마음이 자연히 그 말과 행실에 나타나지만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다. 병(兵)을 동원하더라도 그저 자기 영내 안을 평정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謙亨 君子有終 象曰 謙亨 天道下濟而光明 象曰 地中有山 謙 君子以裒多益寡 稱物平施 初六(初陰) 謙謙君子 用涉大川 吉 象曰 謙謙君子 卑而自牧 六二(二陰) 鳴謙貞吉 象曰 鳴謙貞吉 中心得也 九三(三陽) 勞謙 君子有終 吉 象曰 勞謙君子 萬民服也 六四(四陰) 無不利撝謙 象曰 無不利撝謙 不違則也 六五(五陰) 不富而其鄰 利用侵伐 征不服也 上六(上陰) 鳴謙 利用行師 征邑國 象曰 鳴謙 志未得也 可用

行師 征邑國也)

공경한다는 것은 곧 겸손하다는 것인데 겸손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을 주어 인간관계가 순조로워진다. 유학자 사이에는 주역 64괘 가운데서 이 겸괘가 가장 훌륭한 괘로 지칭되어왔다.

노자 도덕경(老子 道德經)에도 「나에게 삼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지키는데 첫째는 자애요 둘째는 검소요 셋째는 감히 천하의 앞이 안되는 것이다. 자애스러우면 능히 용감하고 검소하면 능히 넓고 감히 천하의 앞이 되지 않으면 능히 그릇을 길게 이룰 수가 있다」(我有三寶 持而保之 一日慈 二日儉 三日 不敢爲天下先 慈故能勇 儉故能廣 不敢爲天下先故能成 器長)고 하였는데 여기에 감히 천하의 앞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보하고 뒤로 간다는 것이니 바로 겸손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겸손은 동방 도덕의 근간인데 고대 농경사회에서 협동작업을 원만히 하기 위한 인간관계이다. 서방의 상업사회에서는 개인적 경쟁이 위주이므로 개인이 자기 상품을 선전광고하는데 주력하지만 동방 농경사회에서는 서로가 협동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가장 원만한 인간관계가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다.

### 3. 논어의 경관

논어(論語)에는 경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온다. 「자기를 닦는데 경으로써 하고 일을 잡을 때 경하며 사람과 더불어 할 때 충하라」(子路問 君子 子曰 修己以敬 執事敬 與人忠-憲門-)는 말이 있고, 「말은 충성스럽고 신의를 지켜야 하며 행동은 독실하고 공경스럽게 하라」(子張問行 子曰 言忠信行篤敬-衛靈公-)는 말도 있고 「군자가 공경스럽고 과실이 없고 사람과 사귄 때 공경스럽고 예의가 있으면 사해안이 모두 형제다」(子夏曰 君子 敬而無失 與人共而有禮 四海之內皆兄弟也-顏淵-)는 말과 「공경하기만 하고 예의가 없으면 피곤하다」(恭而無禮則勞-泰伯-)는 말등이 있다.

#### 4. 맹자의 사양설

맹자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여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도덕적 규범의 씨가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의 사단(四端)으로 인간이 날때부터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하였다. 맹자는 사양지심 대신에 공경지심(恭敬之心)이라는 말도 썼는데 공경과 사양이 그 뜻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공경하는 마음은 사양 즉 사퇴(辭退)하고 양보(讓步)한다는 뜻인데 남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서는 사퇴와 남의 인격을 존중하여 자기를 낮추는 양보가 곧 공경이 되는 것이다.

맹자는 측은지심이 인의 단이요 수오지심이 의의 단이요 사양지심 즉 공경지심이 예의 단이요 시비지심이 지의 단이라고 하여 4단(端)을 주장하였는데 단은 곧 싸이요 시초라는 뜻이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 속에 본래 공경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것이 예의 싸이 된다고 하였다. 예(禮)라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원만히 해나가기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자연적 질서다. 인간은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연히 겉으로 들어내기 마련인데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양을 한다던지 공경을 하게 되면 가만이 있을 수 없고 저절로 경의를 표하는 행동을 한다. 그것이 예다. 예는 누가 강요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일종의 자연적 행동이다. 어린 사람이 어른을 만났을 때에 그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저절로 우러나 머리를 숙인다던지 절을 한다던지 등 그 공경심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예다.

자연적 성품은 하필 인간만이 선량할뿐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 선량하게 타고났다. 생물은 자기 보존의 본능 못지않게 종족 보존의 본능이 강한데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모습은 인간과 다를바가 없다. 그러나 치열한 생존경쟁에 있어서도 인간은 사양지심이나 공경지심의 자연적 발로로 예를 지키나 동물에게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없다. 이는 동물이 원래 성악(性惡)해서 그러하다기 보다는 생존경쟁을 살아나가는 데에 있어서 지혜의 발달이 인간 보다 늦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완만하게 하는 방법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들에게 예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존재 형태는 개인적인 형태, 집단적인 형태, 관계적인 형태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인간이 개인위주로 사는 것은 주로 도시중심의 상업사회의 생활형태로 개인의 자유를 목표로 한다. 서구사회가 그런 형태다. 둘째로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사는 것은 주로 중동 사막지대의 유목사회의 생활형태로 그 집단 전체의 안정과 그 집단 안의 구성원의 평등을 목표로 한다. 셋째로 인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은 주로 농촌 중심의 농경사회의 생활 형태인데 동방사회가 그렇다. 개인주의는 자기의 의지에 반하여 어떠한 지배도 받지 않고저 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동의한 법(法)이란 제도로 사회생활을 유지한다. 집단적 생활 형태에 있어서는 집단유지의 필요상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고 통치자의 명령이 사회규범이 된다. 그런데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평등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스러운 관계를 선호한다. 상업은 개인의 소관이요 또 때와 장소의 제약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법의 기능이다. 집단사회에 있어서는 집단의 강력한 단결이 필요하고 그 단결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절대적인 권위(權威)가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권력자나 사제자(司祭者)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경사회는 아무 곳이나 아무 때나 농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토지에서 일정한 기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무엇보다도 협동단결이 필요하다. 협동단결에는 권력과 같은 강력한 수단도 쓸 수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부터 우러나오는 협동단결은 사람들이 서로 믿는데에 있다. 그 믿음을 굳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경(敬)과 예(禮)다.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예로 나타낼 때 사람들은 서로 믿고 협동한다. 동양에서 법치(法治)나 패권(霸權)보다 예치(禮治)를 선호하는 것은 이 까닭이다.

유교의 최고의 덕은 인의예지인데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측은지심, 수오지심, 공경지심, 시비지심을 잘 기르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다.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예의도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맹자의 생각이다.



## 5. 주자의 거경설

요순우탕문무주공(堯舜禹湯文武周公)의 선왕(先王)의 도는 공자(孔子)에 의해서 유교(儒敎)로 정리되어 봉건사회(封建社會)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유교는 원래 고대 농경사회의 이데올로기로서의 협동정신은 농민의 생활원리이던 것이 차차 지도자의 처신술로 화하여 버리고 민중을 지도하는 선비(士)와 선비를 통제하는 왕자의 천신의 술로 되었다. 말하자면 유교는 일반 민중의 생활 원리라기보다 관료의 처세술이 되고 말았다. 즉 민중의 생활 원리로서 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의 취직수단으로서 유교가 존재하여 유교는 관료화(官僚化)되고 유교를 공부한 다수의 관료 예비군을 소화하기 위하여 그들은 적당히 배치할 수 있는 국가기구(國家機構)가 거대해졌다. 이러한 제도적 정화(制度的 精華)가 당(唐)의 관제(官制)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료화된 유교에 대하여 심각한 자기반성이 송(宋)나라 때에 일어났다. 태평시대인 당나라에 있어서는 유교에 대한 심각한 연구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나 난세(亂世)의 송나라에 있어서는 대단히 내성적인 성격을 띤 불교의 영향과 더불어 유교의 내면화가 달성되었다. 이것이 송의 성리학(性理學)이다.

송대의 성리학은 주염계(周濂溪) 장횡거(張橫渠) 정명도(程明道) 정이천(程伊川)등에 의하여 개척 발전되고 주자(朱子)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주자의 사상은 우주론(宇宙論)과 인성론(人性論)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우주론에서는 주렴계의 태극설(太極說)과 정이천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종합하여 우주의 본체를 태극으로 하는 동시에 태극은 이(理)요 그 이는 기(氣)와 서로 대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태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 유일의 존재요 인간의 이성(理性)에 의하여 개념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요 그 상대적 부분이 이(理)인데 이는 기(氣)와 음양적으로 교감하여 만물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도(道)로 만물을 발생하게 하는 정신적 원리요 기는 형이하학적(形而下學的) 기(器)로 이에 따라 만들어지는 물질적 재료이다. 이 이가 기를 동정(動靜)시키어 기가 운동하여 만물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가 우주론을 이기이원(理氣二元)으로 본 것 같이 그의 심성론(心性論)에

서도 본연(本然)과 기질(氣質) 이성(二性)으로 설명하였다. 이(理)로써 말할 때에는 성인(聖人)과 범인(凡人)도 동일하고 사람과 물건도 구별없는 만물이 일원(一源)인데 이것이 「본연의 성」이라하고 이 본연의 성은 순선(純善)한 것이다. 기(氣)로서 말할 때에는 기가 바른 것은 사람이 되고 기가 비틀어진 것은 물건이 되며, 같은 사람이라도 성인(聖人)의 기는 맑고 범인(凡人)의 기는 흐려서 이와같이 기의 바르고 치우치고 맑고 흐림(正偏清濁)에 의하여 성(性)에 천차만태가 생기는 것이 「기질의 성」이라 하고 기질의 성에는 선악이 있다 하였다. 그는 이(理)에 기인하는 마음은 도심(道心)이라 하고 기(氣)에 기인하는 마음은 인심(人心)이라 하고 수양에 의하여 기질을 변화하여 인심을 바르게 하면 도심이 스스로 밝아진다고 하고 거경궁리(居敬窮理)로서 수양의 근본원칙을 삼았다.

주자는 마음(心)과 성(性)과 정(情)의 관계에 대하여 성은 본연과 기질의 둘이 있는데 그 성이 외물(外物)에 감응(感應)하면 발하여 정(情)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理)는 하늘의 체(體)요 명(命)은 이의 용(用)이며 성은 사람이 받는 바요 정은 성의 용이라고 하였다. 그는 맹자의 이른바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성이요 측은, 수오, 사양, 시비의 4단(端)은 정이라고 하였다.

그가 수양의 근본원칙으로 거경궁리를 내세웠는데 거경이라 함은 내적 수양법으로 자기의 덕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성찰정좌(省察靜坐)하는 공부요 궁리라 함은 외적 수양법으로 널리 사물의 이치를 궁색(窮索)하여 지식을 넓히는 것으로 널리 물리(物理)를 탐구하면 일단 활연(豁然)하게 관통할 수가 있다 하여 학문의 중점을 궁리에 두고 우선 그 이(理)를 안 연후에 이것을 행하여야 한다는 선지후행설(先知後行說)을 취하였다.

주자는 경(敬)이야말로 성문(聖門)의 제일의(第一義)로 요(堯)가 천하를 다스린 것도 공자의 이른바 극기복례(克己復禮)로 기타성현의 천언만어가 돌아오는 곳이 이 경의 일자(一字)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경에는 내외의 두 방면이 있다. 내측 안은 마음을 간직하고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요 외측 밖은 기거동작(起居動作)을 삼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인데 이른바 성찰(省察)은 내적 방면이요 정좌(靜坐)는 외적 방면의 공부라 하였다.

주자는 정좌 중에도 무념무상 좌선입정(無念無想 坐禪入定)과 같은 것은

사경(死敬)이라고 하고 그의 정좌는 동정(動靜)을 뚫고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도 일관(一貫)하는 것으로 이것을 활경(活敬)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경을 지키려면 정(靜)을 주로하고 공부를 하지 않을 때에도 빈번하게 체찰(體察)하여야 한다. 만일 말이 많음을 깨달으면 곧 간묵(簡默)을 쓰고 의지 소활(意志疎濶)하면 세밀(細密)을 가(加)하여 경부천이(輕浮淺易)을 깨달을 수 있으면 마땅히 심침중후(深沈重厚)할지어다 라고 하여 그의 공부의 일단을 보이기도 하였다.

주자 이전에 정명도(程明道)가 경을 성과 같이 중요시하여 그는 성경(誠敬)의 두자로 정신함양의 길로 삼았고 정이천(程伊川)도 경을 역설하여 도에 통하는데는 경이외에는 없다고 주경설(主敬說)을 주장하고 경은 주일무적(主一無適)하고 순일무잡(純一無雜)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주자도 주경설을 역설하여 성문(聖門)의 배움을 오로지 경 한자에 시종하는 것이라고 하고 주자는 그 서제를 경재(敬齋)라고까지 하였다.

그런데 증용에서는 정성은 하늘의 길이요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誠者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라고 하여 성을 강조하였는데 주자는 증용에서도 경을 대단히 중시하였다고 보았다.

증용은 「천명을 성이라 하고 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요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그런 까닭에 군자는 그 보이지 않는데에도 삼가고 그 들리지 않는데에도 두려워한다. 숨겨진 것처럼 잘 보이는 것이 없고 작은 것처럼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 그런 까닭에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간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 是故君子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莫見乎微 故君子慎其獨也)로 시작하였다.

주자는 「두려워한다」와 「홀로를 삼간다」의 양절이 군자의 경건(敬謹)한 마음을 말한다고 하였다.(戒懼慎獨兩義 但言君子敬謹之心)

성리학에서 경을 중요시하는 까닭에 자연히 예를 중요시하여 예학(禮學)이라는 것이 발달되게 되었다.

## 6. 퇴계의 주경설

중용(中庸)에서 「정성은 하늘의 길이다」(誠者天之道也)라고 말하기 때문에 윤리 도덕의 극치는 성(誠)이라고 여겨지고 성의 선천적 천도(先天的 天道)에 대해서 경은 후천적 인도(後天的 人道)로 여겨져 경은 성의 하위개념(下位概念)으로 생각하는 유학자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주학과(程朱學派)에 이르러 경이 역설되어 주경설을 이루었는데 그 주경설은 퇴계(退溪)에 이르러 대성되었다.

퇴계는 주자의 학설을 존중하여 거경궁리(居敬窮理)로 수양론을 삼았는데 특히 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 퇴계는 경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어서 참(眞)을 쌓아 오래 힘쓰고 노력하는 군자(君子)의 경(敬)으로부터 종용중도(從容中道)하는 성인(聖人)의 경(敬)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성장과 성숙은 가능하게 하는 힘이요 인(仁)을 실현하는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퇴계는 정지운의 천명도를 개작한 그의 천명신도(天命新圖)에서 그 핵심이 되는 심도(心圖)와 정권(情圈)의 중앙에 경(敬)을 표시하여 놓았고 68세때 선조(宣祖)에게 올린 성학십도(聖學十圖)에서도 「이 십도가 모두 경(敬)을 주로 한다」라 하여 그의 사상적 결정이라 할 수 있는 「성학십도」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사상이 경(敬)임을 밝히고 있다.

퇴계는 「성학십도」 제4 대학도(大學圖)의 주(註)에서 「경(敬)이란 일심(一心)의 주재요 만사 만물의 근본이다. 대소학(大小學)의 시종이 다 경(敬)으로 일관된다」라는 주자의 말을 인용하고 그러므로 경(敬)일자는 성학시종(聖學始終)의 요(要)가 된다고 하였다.

퇴계는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에서 진지(眞知)에 이르는 방법으로 경(敬)에 바탕을 둔 궁리(窮理)를 말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경을 위주로 하여 모든 사물에서 그 소당연(所當然)과 소이연(所以然)의 까닭을 궁구하고 그것을 침잠, 반복, 완색, 체험하기를 지극히 하여 세월이 오래되고 공력이 깊어짐에 이르면, 하루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시원스레 풀려 활연(豁然)히 관통하는 곳이 있게 되면 체용(體用)이 일원(一源)이요 현미(顯微)가 무간(無間)이라 함이 참으로 그러함을 비로소 알게 될 뿐 아니라 위미(危微)에 미혹된다던지 정일(精一)에 현혹되지 않아 중(中)을 잡을 수 있게 되니 이것을 진지

(眞知)라 한다고 하였다.

결국 퇴계에 있어서 경(敬)은 인간이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아를 확고부동하게 지켜가려는 태도이며 또한 참된 진리에 나아가는 바탕을 이루는 힘인 것이다.

이와같이 퇴계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유학의 경사상을 대성시켰다.

### Ⅲ. 천도교에서의 경

#### 1. 수운의 경관

천도교 창시자 수운(水雲)은 포덕문(布德文)에서 「일동일정(一動一靜)과 일성일패(一盛一敗)를 무두 천명(天命)에 부쳤으니 이는 천명을 공경(敬天命)하고 천리를 따르는 것(順天理)이니라」 하였고 논학문(論學文)에서 「도를 배반하는 자(反道而歸者)는 공경하되 멀리할 것이니라」(敬而遠之)라 하였고 좌잡(座箴)에서 「우리 도는 넓고도 간략하니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별로 다른 도리가 없고 성경신(誠敬信) 석자니라」 고 하였다.

수운은 천명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했다. 천명은 우리의 전생활 즉 일동일정과 일성일패에 걸쳐 있으므로 그것을 공경하였고 인간은 천주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侍天主) 공경하였다. 도를 믿는 사람은 물론이요 도를 믿지 않은 사람도 경경하였으며 심지어는 도를 배반한 사람까지도 멀리하기는 하지만 공경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 해월의 삼경설

천도교 이세 교주 해월(海月)은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의 삼경설(三敬說)을 주장하였다. 그는 사람은 첫째로 경천(敬天)을 하지 아니치 못할지니 이것이 선사(先師)의 창명(創明)하신 도법(道法)이다. 경천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니 왜냐하면 한울을 진리의 충(衷)을 잡는 것임으로써 이니라. 그러나 경천은 결단코 허공을 향하여 상제를 공경한다는 것이 아니오 내 마음을 공경함이 곧 경천의 도를 바르게

아는 길이니 「오심불경이 즉 천지불경이라(吾心不敬 卽天地不敬)」 함은 이를 이름이다. 사람은 경천하므로써 자기의 영생을 알게 될 것이요 경천 함으로써 인오동포 물오동포(人吾同胞 物吾同胞)의 전적이체(全的理諦)를 깨달을 것이요 경천함으로써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 세상을 위하여 의무를 다할 마음이 생길수 있나니 그럼으로 경천은 모든 진리의 중추를 파지(把持)함이니라. 둘째는 경인(敬人)이니 경천은 경인의 행위에 의지하여 사실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경천만 있고 경인이 없으면 이는 농사(農事)의 이치는 알되 실지로 종자(種子)를 땅에 뿌리지 않는 행위와 같으니 도(道) 닦는자 사람을 섬기되 한울과 같이 한 후에야 처음으로 바르게 도를 실행하는 자니라. 도가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르지 말고 한울이 강림하였다 이르라 하였으니 사람을 공경치 아니하고 귀신을 공경하여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우속(愚俗)에 귀신은 공경할 줄은 알되 사람을 천대하나니 이것은 죽은 부모의 혼은 공경하되 산부모는 천대함과 같으니라. 한울이 사람을 떠나 별도로 있지 않는지라 사람을 버리고 한울을 공경한다 하는 것은 물을 버리고 해갈을 구하는 자와 같으니라. 셋째는 경물(敬物)이니 사람은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극치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물(物)을 공경함에 까지 이르러야 천지기화(氣化)의 덕에 합일될 수 있느니라.

이상이 해월의 삼경설인데 다만 경천만 하여서는 부족하고 경천과 더불어 경인 경물까지 하여야 비로소 공경을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한 그의 사상은 천지인이 일체요 우리가 존재하는 근거도 남을 공경하는데 있고 남을 공경하는 것이 곧 자기를 공경한다는 자타일체(自他一體)의 경지를 잘 말하여 주고 있다.

해월은 그의 삼경설을 실천에 옮김에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까지 향벽설위(向壁說位)하던 것을 향아설위(向我說位)로 고쳤다. 그는 고대로부터 향사(享祀)할 때에 벽을 향하여 위(位)를 설(說)케 함은 진리에 어그러진 일 이니라. 이제 문노니 부모의 사후정령이 어디로 갔으며 또 선사(先師)의 정령이 어디있다 믿음이 이(理)에 합할 것이냐. 생각컨데 부모의 정령은 자손에 전하여 왔으며 선사의 정령은 제자에게 강림되었을 것이다라고 믿음이 가장 이(理)에 합당하도다. 그러면 내부모를 위하여 선사를 위하여 향예(享

禮)할 때에 그 위(位)를 반드시 자아(自我)를 향하여 설함이 가하지 아니하  
 나 누가 생각하던지 사후 문제가 없다면 모르되 만일 있다하면 미래의 인간  
 을 버리고 그 정령(精靈)이 어디에 의거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향아설위  
 는 직접 신인합일(神人合一)의 이(理)를 표시하는 것이며 천지만물이 오신  
 (吾身)에 갖추어 있는 이치를 밝힘이니라.

해월의 향아설위설은 오직 경으로 인하여 천지만물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  
 는 이치를 밝힌다고 하였는데 경은 남을 위하여 나를 낮추는 일이지만 나를  
 낮추는 경을 행하므로 결국 나 자신을 공경하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 IV. 증산과 경

### 1. 현무경의 경

증산이 친이 지은 현무경에는 주우영가(宙宇詠歌)에서 「시천주조화정 영  
 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  
 至願爲大降)의 시천주(侍天呪)를 쓰고 또 주우수명(宙宇壽命)에서 「지기금  
 지원위대강」 다음에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이라고 쓰고 있다. 시천주는  
 수운이 계시받은 주문이요 성경신은 수운이 동학을 요약한 말이다. 증산이  
 시천주를 내세우고 성경신을 강조한 것은 증산이 대각득도하는데 있어 수운  
 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운은 성경신을 동학의 요체로 보았는데 증산은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  
 이라고 하여 성경신은 비단 동학에서의 요체일 뿐 아니라 천지의 요체임을  
 강조하였다. 대순진리회의 신조의 3요체인 성경신은 이로 말미암아 도통되  
 어 천지와 내가 하나로 되는 믿음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 2. 김일부의 공경

전경 행록 2장 2절에 보면 증산께서 정유(丁酉, 1897년, 27세때)년에 김일  
 부(金一夫)를 만났는데 일부는 당시 영가무도(詠歌舞蹈)의 교법을 문도에게  
 펼치고 있던중 어느날 꿈을 꾸니 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일부에게

강사옥(士玉)과 함께 옥경(玉京)에 오르라는 천존(天尊)의 명하심을 전달했다. 그는 사자를 따라 사옥과 함께 올라갔고 사자는 높이 솟은 주루금궐 요운전(曜雲殿)에 그들을 안내하고 천존을 배알하게 하였다. 천존이 (증산)상제에게 광구천하의 뜻을 상찬하고 극진히 우대하였다. 일부는 이꿈을 꾸고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돌연히 (증산)상제의 방문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부는 (증산)상제께 요운(曜雲)이란 호를 드리고 공경하였다고 되어있다.

김일부는 1826년에 논산(論山)에서 출생하여 1898년에 계룡산에서 타계했다. 그는 연담(連潭) 이운규(李雲圭 一名守曾)에서 주역을 공부하였는데 연담은 강산(叢山) 이서구(李書九)의 학통을 이었는데 이서구는 천문 역학의 대가였고 전라감사(全羅監司)시절 채지가(採芝歌)를 지어 남조선(南朝鮮)사상과 증산의 탄생을 예언하였다고 전해지는 사람이다. 그 이서구의 학통을 이은 연담 이운규의 문하에 일부가 들어갔는데 수운 최제우도 같이 있었다고 한다. 하루는 연담이 수운을 불러 선도를 대표하여 이 세상에 나왔으니 주문을 외우라고 하고 일부에게는 공자의 도를 이르라고 했다고 한다. 일부는 계룡산에 들어가 역학을 공부하다가 1879년 54세때 도통하여 1885년 60세에 정역(正易)을 완성하였다. 수운은 1824년에 탄생하여 1860년 37세때 도통하였고 1864년 41세로 타개했다. 그런데 증산은 1871년 탄생하여 1900년 30세에 도통하여 1909년 39세로 타계하였다. 증산이 일부를 만날때는 1897년 증산이 27세시였는데 당시 일부는 72세의 고령이었다. 72세의 고령인 일부가 27세의 증산을 공경하였다는 것은 이미 도통하여 천지의 진리를 알고 있어 젊은 증산에게서 상제의 자취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가 증산을 공경한 것은 증산 속에 들어 있는 상제의 기운이었을 것이다.

또 전경 예시 3절에는 상제께서 광구천하심은 김일부의 꿈에 나타났으니 그는 상제와 함께 옥경에 올라가 요운전에서 원신(元神)이 상제와 함께 광구천하의 일을 의논하는 것을 알고 상제를 공경하여야 함을 깨달았도다로 되어있다.

### 3. 기타인의 공경

김일부의 상제 공경외에도 전경 1장 23절에는 김덕찬이 상제를 천신과 같



이 공경하고 받들었다고 하였고 전경 권지 2장 16절에는 김명철이 상제를 공경하는 마음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전경에는 공경이란 말대신에 경대(敬待) 경복(敬服) 경송(敬頌)등의 말로 표현된 곳도 있다.

전경 행록 1장 11절에는 상제께서 어려서 성품이 원만하시고 관후하시어 남달리 총명하셔서 못사람들로부터 경대를 받으셨다고 하였고, 전경 행록 2장 24절에는 안필성이 모자리를 하려는 법씨를 지고 집을 나설 때에 상제가 밭에 부운 법씨가 그대로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전보다 한층 더 상제를 경대하였다고 하였다.

또 전경 행록 3장 37절에는 차경석이 상제의 위대하심에 경복하였다고 하였고 전경 교운 1장 24절에는 병자가 상제의 통찰하심에 경복하여 병자는 스스로 송구스러워 귀가했다고 하였고 전경 제생 4절에는 상제께서 약재를 쓰지 않고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을 건져주시니 모든 사람들은 그 신력에 경복하였다고 하였고 전경 권지 1장 18절에는 상제께서 노름꾼들에게 탄 돈을 돌려주니 저희들이 경복하여 허둥지둥 돌아갔다고 하였다.

또 전경 권지 1장 1절에는 유서구가 상제의 예지(叡智)에 깊이 놀래어 상제를 경송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공경이라고 하던지 경대라고 하던지 경복이라고 하던지 경송이라고 하던지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데에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공경의 극치는 경천이다. 하느님을 존경하는 것은 정성이나 신앙과 별차이가 없다. 이 경천하는 마음씨로 사람을 공경하고 만물을 공경하면 음양이 합덕되고 신인이 조화되며 해원상생하고 도통진경하게 된다.

## V. 경과 애의 관계

공경(또는 존경)하는 것과 친애(또는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공경한다는 것은 상하관계에 있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대한다는 뜻이요 사랑한다는 것은 평등관계에 있어 상대방을 존대한다는 것이다. 경천애인(敬天愛人)이라는 말에 있어서 공경 경(敬)과 사랑 애(愛)자의 구별을 잘 볼 수 있

다. 하늘은 지극히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보다 공경한다는 말이 어울리고 사람을 상대할 때에는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뜻으로 공경이란 말보다는 사랑이란 말을 쓴다. 그러나 공경과 사랑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여 가면서 상대방을 위하고 존중하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의 본질은 유교에서 말하는 인이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하는 마음이다.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다같이 인간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공경이 지극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지극하면 공경하게 된다. 꼭 대등해야만 사랑하고 꼭 상하관계에 있어야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도 공경할 수 있고 상하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할 수가 있다. 옛날에 봉건적 계급이 심했을 때에는 공경이 있을 뿐 사랑은 없었고 요즘과 같은 만민평등의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사랑이 있을 뿐 공경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요즘의 경천(敬天)대신 애천(愛天)이라 하기도 하고 애인(愛人) 대신 경인(敬人)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공경과 사랑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그렇게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공경이라는 것은 사랑을 내포하고 있고 또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공경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사랑없는 공경은 허례(虛禮)요 공경없는 사랑은 욕심(慾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 VI. 경의 현대적 의의

### 1. 인간 존엄성의 회복

인간의 이성(理性)의 발달과 과학의 발전에 따른 기계문명의 번영은 인간 자체를 왜소화(矮小化) 시켜 인간은 그가 만든 조직과 기계앞에 주인노릇을 하지 못하고 한낱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인간은 그 존엄성을 망각하고 단지 편리하고 안락하게 사는데에만 집착하여 신성성(神聖性)과 같은 높은 가치따위는 돌보지 않고 오직 인간의 동물성(動物性)만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상실되어 인간이 인간을 서로 천시(賤

視)하며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 때에 인간이 그 존엄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인간은 영구히 동물적 본능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라는 것은 참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경의 생활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우리는 경에는 세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만물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천지만물은 각각 존재이유가 있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 존재가치를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 경의 첫 단계인 만물에 대한 존중으로 해월이 말한 경물(敬物)이다.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것자체로 존중되어야만 만물의 질서가 유지되고 나아가서는 창조주의 섭리에도 합당한 일이다. 그와같은 만물에 대한 존중의 생각은 곧 인간에 대한 존경으로 이어진다. 인간은 만물 가운데 가장 존엄한 존재이다. 인간이 만물 가운데 가장 존엄하다는 것은 그 도덕적 심성에 있다. 만물은 본래 태어날 때는 다 선량한 심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라남에 따라 생존경쟁의 필요상 자연히 악성(惡性)까지도 발휘하게 되는데 그 악성을 죄악인줄을 모르는 것은 동물이요 그 악성을 죄악으로 인정하고 그 죄악을 버리고저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와같이 선악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인 심정인데 그 도덕적인 심정이 인간에게만 있으므로 인간이 만물중에 가장 존엄한 존재가 되어 있다.

오늘날 인간이 타락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도덕심이 흐려져간다는 말이다. 그 도덕심을 회복시키고저 하면 무엇보다도 상대방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그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람이 사람같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을 존경할 생각이 나지 않지만 사람이 인격을 구비하게 되면 자연히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온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상대방 되는 사람의 존엄성까지도 아울러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도덕심이 깊고 인격이 완전하면 자연히 다른 사람도 도덕심이 깊고 인격이 완전한 것으로 믿어져서 자연히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된다. 그러므로 남을 존경하는 사람은 그 스스로의 인간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행위가 된다. 반대로 남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도덕심이 약하고 자기 자신의 인격이 불완전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와 같으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게 된다. 즉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요 이는 곧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경의 첫째 단계가 만물에 대한 존중이요 둘째 단계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국경인데 공경의 셋째 단계는 절대자를 신성시하는 단계이다. 그것이 절대자에 대한 경건이요 신앙이다. 절대자에 대한 경건심은 곧 인간의 신성(神性)의 발로이다. 우주에는 궁극적 존재가 있는데 그 궁극적 존재의 신성성(神聖性)은 인간의 내부와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지성의(知情意)의 세가지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고 지성(知性)은 진리를 탐구하고 감정(感情)은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의지(意志)는 착한 것을 탐구하여 인간은 진선미(眞善美)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서 그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진선미를 초월하여 좀더 근원적인 가치인 신성(神聖)스러움에 들어감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최고의 가치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곧 종교적 경지이며 이로 인하여 인간과 신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도덕적 자각에 있지만 그 도덕적 가치를 뛰어넘어 종교적인 거룩함(聖)을 이루는데서 비로소 인간은 완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공경의 셋째 단계인 신성성에 대한 경건은 절대자에 대한 신앙인 동시에 인간의 신성성에 대한 자각이기도 하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신성성을 자각함으로써 극도에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2. 우주 신성성의 확인

오늘날 인간이 스스로 비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하고 동물성으로 퇴화하여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인간의 위기일 뿐 아니라 우주 질서에 대한 반역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주는 본래 신성한 것으로 광명이 있고 생명이 있고 공경과 사랑이 있다. 우주의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명이 나타났고 생명이 생기고 공경과 사랑이 넘쳐서 우주간의 만물이 생육하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우주의 신성성이 타락되면 우주는 암흑으로 변하고 생명은 사라져서 죽음만이 있고 공경과 사랑을 찾을 수 없고 오만과 미움만이 가득한

추한 세상이 될 것이다.

원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본래 우주의 신성성에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우주가 신성하기 때문에 그 우주의 일부인 인간도 존엄하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간의 동물적 본능만 중요시하는 인간비하론자가 우주의 신성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도 인간의 존엄성만을 강조하고 우주나 만물의 신성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인간이 지상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오만해져서 우주나 지구나 만물의 신성스러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원래 인간과 우주는 일체가 되어 우주가 신성하면 인간도 존엄하고 우주가 더러우면 인간도 천하다. 우주의 절대자의 신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 깊은 곳의 절대자의 본체를 깨달은 사람이다. 우리는 깨달음으로 거룩함(聖)을 이루는데 이 거룩함은 바로 우주의 본체이다. 우주의 본체는 물질과 정신이 혼합되어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인간의 본체도 이와같이 육체와 영혼이 혼합되어 하나의 조화를 이룰 때에 거룩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물질만 있다면 우주는 신성하지 못하다. 그것은 썩은 나무가지와 다름없다. 또 정신만 있다면 우주는 신성하지 못하다. 그것은 꿈과 같이 허무한 것이다. 물질과 정신이 합일되어 물질 속에 정신이 있고 정신 속에 물질이 있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우주이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 속에 영혼이 깃들고 영혼 속에 육체가 깃들어 있을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요 이른바 도통한 사람이다. 우주가 영원하고 무궁하듯이 인간이 영원하고 무궁을 자각하면 그때 성스러움을 깨닫게 되고 우주와 합치된다.

우주와 지구와 천지만물과 인간에 대한 신성성을 자각시키는 일은 우주의 신성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천애인(敬天愛人)을 최고의 도덕으로 삼았고 대순진리회에서도 경천 수도(敬天修道)에 역점(力點)을 두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